

201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B형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①	5	④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③	14	①	15	②
16	⑤	17	①	18	③	19	①	20	⑤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④	30	②
31	②	32	⑤	33	③	34	①	35	③
36	③	37	⑤	38	②	39	②	40	②
41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⑤

B형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입론 내용 파악하기

찬성 1은 입론에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 찬성의 논거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 조항을 들고 있고, OECD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사회자의 발화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 [출제의도] 입장에 적합하게 자료 활용하기

<보기>의 자료는 경기 침체로 여가 비용에 대한 지출이 줄고, 외부 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휴일이 늘면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관련된 소비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찬성 1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 [출제의도]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하기

확인 질문에서는 상대방 입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논거를 반박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 휴일 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의 성격과 요소 파악하기

영희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답화 상황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①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체적 말하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 [출제의도] 공감하는 말하기의 전략 파악하기

선생님은 영희의 표정(비언어적 요소)을 고려하여 영희의 심리를 물어보면서 영희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매사에 꼼꼼한 학생'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영희가 말을 이어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영희의 말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희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작문 **

6. [출제의도] 자기소개서의 특성 고려하여 글쓰기

학생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교내 합창 대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고, 읽는 이를 고려하

여 격식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관계없는 '학교 축제는~재미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7. [출제의도] 보고문 쓰기를 위한 계획하기

<보기 1>에서 학생은 힐링 열풍의 실태와 원인을 찾고, 힐링이 상업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론에는 사례를 통해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힐링 열풍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8. [출제의도] 자료 분석하여 내용 생성하기

힐링 열풍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보기 2>에 제시된 (가), (나)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신 건강에 힐링 열풍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야 (가)의 자료를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나)의 브랜드 출원 건수의 증가는 힐링 열풍이 상업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참여율 10% 미만의 항목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의도에 맞는 글쓰기 전략 활용하기

친구와 함께 시험 공부를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은 학생의 실제 경험이다. 학생은 이와 같이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작문 과제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출제의도]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㉔을 바로 앞 문장으로 옮기면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의 탈락 규칙 이해하기

㉑의 '뱃고'는 음절 끝소리 'ㄹ'에서 'ㄱ'이 탈락한 후, 뒷말 첫소리 'ㄱ'이 'ㄴ'과 만나 된소리로 바뀌어 [뱃꼬]로 발음된다. ㉒의 '좋아서'는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탈락하여 [조아서]로 발음된다. ㉓는 축약어, ㉔은 구개음화가, ㉕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적용하여 발음하기

㉑에는 표준 발음법 제29항을 거쳐 제18항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절하다. ㉒의 '색연필'의 발음은 [생년필]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㉓ '식용유[시공유]', ㉔ '숨이불[숨:니불]', ㉕ '맨입[맨닙]'은 제29항만 적용되었고, ㉖ '국물[궁물]'은 제18항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3.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 때의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4.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5.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㉑은 접속조사 '과'로 연결된 두 목적어 중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필수성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㉒의 '불러졌다'는 피동 접미사인 '-리-'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사용된 이중 피동어이므로 '불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㉓는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문장이 중의성을 갖게 된 예이다.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㉔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명사와, '-에게'는 유정명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㉑의 조사 '-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㉒의 '불휘'는 '불휘+0'로 분석되고, '불휘'는 현대 국어 '뿌리가'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㉓의 '남근'의 형태소 분석에 따르면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것을 알 수 있다. ㉔의 조사 '은'과 ㉕의 '므른(믈+은)'의 조사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하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이형태이다. ㉖의 '브르매(브름+에)'의 조사 '에'는 '브름'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㉗ '바르래(바름+에)'에 사용된 조사 '에'는 '바름'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에'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

□ 출전: 강신주, <본질이란 무엇인가>

17.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물의 본질은 사후적 구성 논리에 의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8. [출제의도] 다른 자료를 통해 내용 추론하기

불교에서의 '자성'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무자성'을 강조한다. 이는 본질이 없다는 것으로, 본질에 대한 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이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이 반복됨으로써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술 **

□ 출전: 박평중, <사진의 경쟁-19세기->

19. [출제의도] 내용 전개 파악하기

이 글은 사진의 경향을 19세기 후반의 픽토리얼리즘, 20세기 초의 스트레이트 포토,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의 특징과 그에 담긴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사진은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 '스트레이트 포토'의 한 작품이다. 프레임에 담긴 옛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㉑의 픽토리얼리즘은 회화적 구현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달리 하고, ㉒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은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조한다. 그래서 ㉑과 ㉒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사회 **

□ 출전: 홍성훈,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2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시장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은 수락자가 한 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경우이므로 수락자는 반드시 그 제안자와 잠정적 매칭이 이루어지며, 만약 모든 제안자가 각각 한 명에게만 제안했다면 모든 제안자와 수락자가 매칭을 이루게 되므로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또한 ㉡은 여러 명의 제안자 중 수락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택한 경우이며, ㉢과 ㉣은 모든 제안자가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반복된다.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수락자가 제안을 받은 후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제안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①, ②, ③, ⑤는 제안자와 수락자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④는 정보만 제공할 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과학 **

□ 출전: 임두언, <고흡수성 수지>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을 보면 고흡수성 수지는 그물 모양의 3차원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고흡수성 수지의 필요성, 구조, 특성, 망상 구조의 형성 과정, 고흡수성 수지가 망상 구조를 지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의 활용 분야를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친수성 도료를 칠하게 되면, 도료가 물과 반응하여 녹이 슬거나 도료 자체가 물을 흡수하여 배의 운항에 지장을 준다. 선박의 도료는 소수성 작용기를 이용해서 물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8. [출제의도] 어휘의 관계 파악하기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에서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이고 ‘철수는 신호를 지켰다’에서 ‘지키다’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이다. ‘보다/지키다’는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만 유의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독서 **

□ 출전: 이이, <격몽요결>

29.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필자는 실용 도서와 대화소설 등 회사 생활에 유용한 책을 찾아 읽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0. [출제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①은 3문단의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③은 3문단에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것을 통해, ④는 4문단에 ‘책을 속독하고 뜻과 취지를 깨달아서’를 통해, ⑤는 1문단에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독서 전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②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31.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관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 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과거 자신을 살려준 ‘조조’의 은혜를 생각하여, ‘조조’를 잡고서도 풀어준다. 목숨을 살려 준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관공’은 군율을 어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A]에는 관공의 위협에 비굴하게 비는 ‘조조’의 모습이 희화화되어 있다. [B]에는 말 아래 떨어진 ‘조조’를 보고 ‘장졸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A], [B] 모두 관습적 표현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특성 파악하기

‘조조’는 살길을 도모하려고 상대 적장에게 비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비는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4. [출제의도]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유방백제’는 뜻이 다른 이를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에 적합하다. ㉡는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한다. ㉢은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의미한다. ㉣은 분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시가 **

□ 출전: 박인로, <자경(自警)>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제1수>에서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명정’을 닦으면서도, ‘명덕’은 닦지 않는 모습을 대비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ㄱ). <제2수>에서는 ‘성의관’, ‘팔덕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을 드러낸다(ㄷ).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6.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1수>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명덕’을 닦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제3수>에서 화자는 ‘행인’들을 구제하려는 포부가 있었으나 부족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그 포부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 ‘행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김성한, <김가성론>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가성’의 표절 행위, 위선적인 모습, 속물적인 모습을 삽화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러한 ‘김가성’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8. [출제의도] 서사적 흐름에 따른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나’는 ‘김가성’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나’의 어수룩함 때문에 ‘김가성’의 속물성이 더욱 부각된다(①).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에 의해 ‘김가성’의 실체가 드러나지만(④) ‘나’는 이들과

달리 김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③).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⑤). ‘나’를 통해 ‘김가성’의 숨겨진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②)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9.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의도 추리하기

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인 ‘김가성’이 특정한 상황을 비웃는 것으로, 든 것은 없으면서 걸으며 점잖은 행세를 하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걸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음을 추릴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윤동주, <길>

(나) 이수익, <방울소리>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부끄러움과 의지를, (나)는 ‘방울소리’의 소재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1.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화자는 ㉠을 매개로 소박하고 평화롭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를 생각한다. 그리고 ㉢과 함께 ‘육분이’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게 된다. 현재 화자는 ㉣으로 상징된 때때로 문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을 들으며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과거를 환기하는 것이지,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시나리오 **

□ 출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엄마’는 S# 51에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고, S# 67에서 ‘정수’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으며, S# 73에서 ‘정철’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엄마’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4. [출제의도] 영화화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C]에서 ‘엄마’는 자신이 부재하더라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며 ‘정철’과 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화면 밖의 해설로 들려주는 내레이션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출제의도] 갈래를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에서 ‘정철’이 오열하면서 아내의 몸을 껴안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달리, ‘S# 76’에서는 ‘정철’이 이를 양다물고 우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